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성탄 맞이 축하행사가 교회학교 주관으로 오늘 오후 2시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세례입교식과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수요저녁집회는 없습니다.

설거지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식당 앞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선교회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참기름은 한 병에 8,000원 들기름은 7,000원입니다.

성탄절 전에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안팎을 깨끗이 정돈하고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통독 성경 : 바울서신
 일 시 : 1월 6-8일 (월-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 소 : 교육관

사 7:10~16 / 시 80:1~7
 롬 1:1~7 / 마 1: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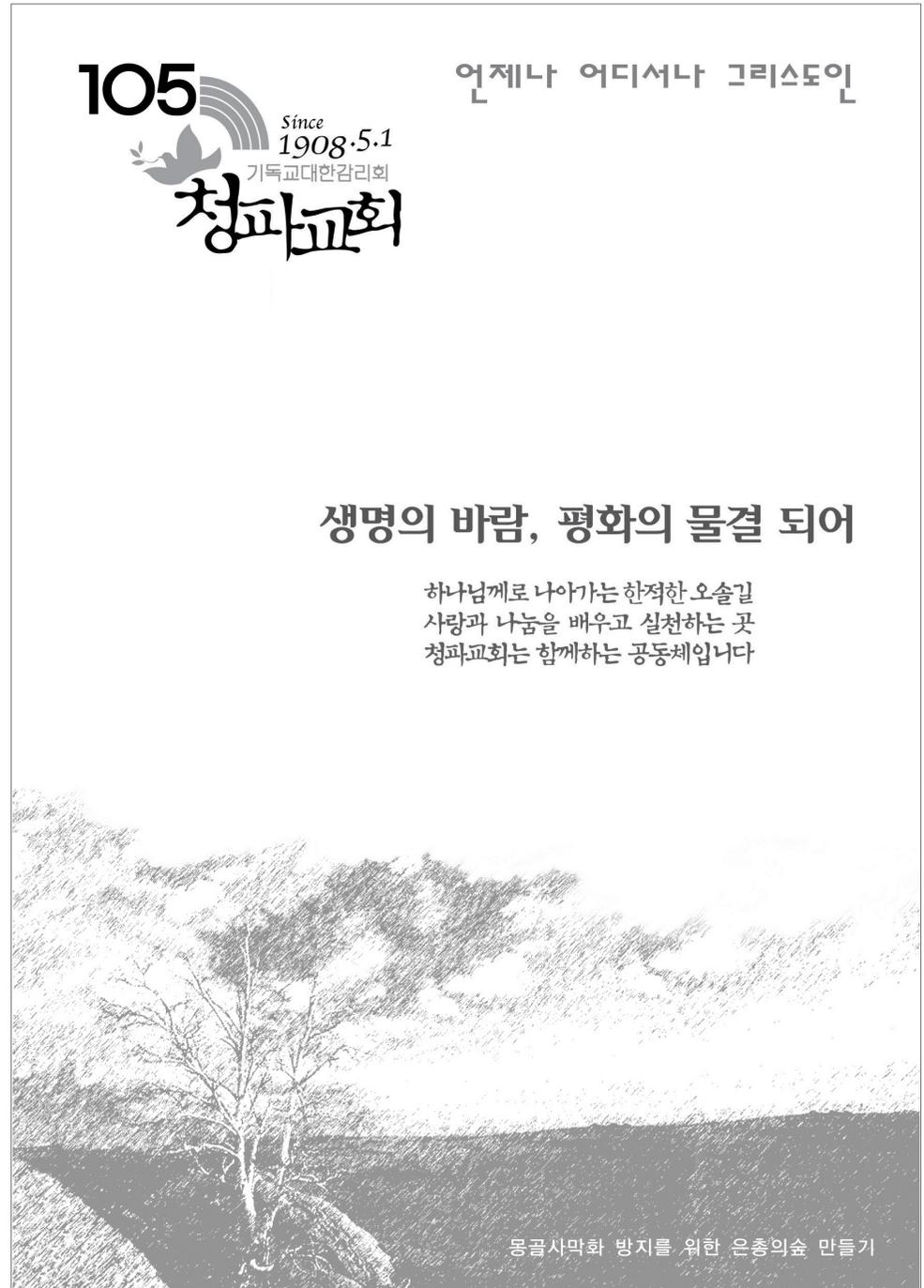
막 1:9-20

식 당 봉 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왕영순 정복순 이성범
 25일 식당 봉사 : 이순정 오복순 이선화 박안수 이윤석 원인혜 문복순 황현성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이은정 서수진 이미혜 이명희 최숙화 문홍일
 오늘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한기택 장혜정
 다음 주 설거지 : 윤석철 김정애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무지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은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얼음 같이 차가운 마음과 돌맹이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주님은 그 마음속에 따스함과 부드러움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유에서 있었던 거룩한 탄생이 우리의 작고 초라한 마음의 구유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근원, 진리의 빛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원영 권혁순 박혜경 김순자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김재환 김진선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훈동 유경순 류건형
 이주은 박병구 박영희 박옥순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안세진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윤주원 최윤선 이광용 형인순
 이근식 신영신 이봉옥 이자영 이준림 이현순 임주빈 최현옥 장근성
 박희순 정종삼 정현모 조현권 박아영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허준호
 무명

감사헌금

김재환 김진선 김종술 박미란 문금석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심기섭
 오규만 전인섭 전해민 김성공 정복순 무명2

녹색꿈 헌금

박옥식 박호규 강영님 시시권 백경임 이경희 이광석 추현영 무명

	장혜숙 노순옥 김재흥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김수진 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심	심
--	--	--	---	---

기억할 만한 지나침

- 기형도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희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 방에서 서기(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온갖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과 죄된 일을 버리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의를 행하십시오. 주님의 큰 사랑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편협하고 삿된 생각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탄 맞이 축하 행사	성탄축하 (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양재성 목사	공동기도 장혜숙 권사	김태환 선생 박혜경 집사

12	영접위원	방문성 김정민 김현동 오유경 이해령 박시내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믿음으로 읽는 글

대림절 아침에 갖는 희망

... 나는 대림이 오면, 꼭 토요일 저녁 미사에 간다. 대림이라는 은총의 시간을 온 맘으로 끌어안고 싶고, 내 나를대로 마음껏 환영하고 싶어서이다. 대림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시길 기다리는 시기인데, 영어로 하면 애드벤트(Advent)이며, 이 말은 라틴어로 앳벤투스(Adventus), 즉 ‘오심’이란 뜻이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기쁨과 설렘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물론 앳타는 조바심도 포함된다. 좋아하는 두 사람 사이에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많이 조바심을 갖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고운 마음이고 다치기 쉬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림을 사는 우리의 마음은 조심스럽고, 또 부드러운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다시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훨씬 크셔서, 그분의 마음은 더욱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지 않았을까?

언젠가 선배 수녀님이 들려주신 목상이 떠오른다. 아주 추운 저녁에 아기 예수님을 목상하다가, 그분의 십자가를 보았다고. 아기 예수님이 추우시겠다고 걱정하면서 바라보던 구유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계시더라고 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수녀님이 한없이 맑고 깊어 보였다.

사실 대림 안에 수난이, 성탄 안에 부활이 담기는 것이 신앙의 신비이며, 그것을 꿰뚫어 보는 신앙이 세상을 사는 힘일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대림을 산다는 것은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그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한복판에 놓인 그분의 수난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의 오심, 이 세상에 언젠가 구현될 완전한 하느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대림은 감상적일 수만은 없다. 보랏빛 종소리에 마음을 밝히고 대림초에 불을 붙일 때, 우리는 거리로 나아가야 한다. 사랑은 눈 내리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장난처럼 가볍고 즐겁게 조금씩 내리지만, 그 눈이 쌓이면 생나무를 찢어 내리는 거대한 아픔으로 다가온

다는 어떤 시인의 말처럼, 대림의 아름다움과 그 설렘은 사랑의 아픔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인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며,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림도 결국 이 시간, 여기, 내게 다가오는 하늘 나라로 성큼 걸어 들어가 그분을 만나라는 초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에 “너희는 광야에 나가 무엇을 보았느냐”는 세례자 요한의 얼음장 같은 말씀을 듣는다. 거리로 나가서 나는 무엇이, 혹은 누가 내가 오는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 같다. 아니, 거리로 나가서 나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보고 싶은지 먼저 목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 영성은 수목화처럼 관조하면서, 아름답고 따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 정치적인 정황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따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전체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 민족이 겪는 이 아픔 속으로 다가가 배우고 싶다. 한 인격을 미워하지 않고, 내 인격을 다치는 일 없이, 여전히 희망하며 견디는 일, 그 고단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

자본주의에 영혼을 판 우리 세대는, 대림이 주는 아주 부드러운 은총 앞에, 가난한 마음이 가지는 행복을 다시 한 번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의 하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집, 내가 갖고 싶은 책은 하얀 성경 책,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하는 노래다.

좋은 것, 비싼 것이 줄 수 없는 삶의 품위는 물질을 소유함보다는 물질에서 자유로움에서 온다고 본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힘으로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안다(필리 4,12)고 고백하고 싶다. 요즘 세상을 보면, 톨스토이의 소설처럼 인간은 얼마만큼의 땅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나 늘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맑은 가난을 사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갑부들의 식탁보다 훨씬 고상하게 시장에서 국수를 먹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사는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고 싶다. ...